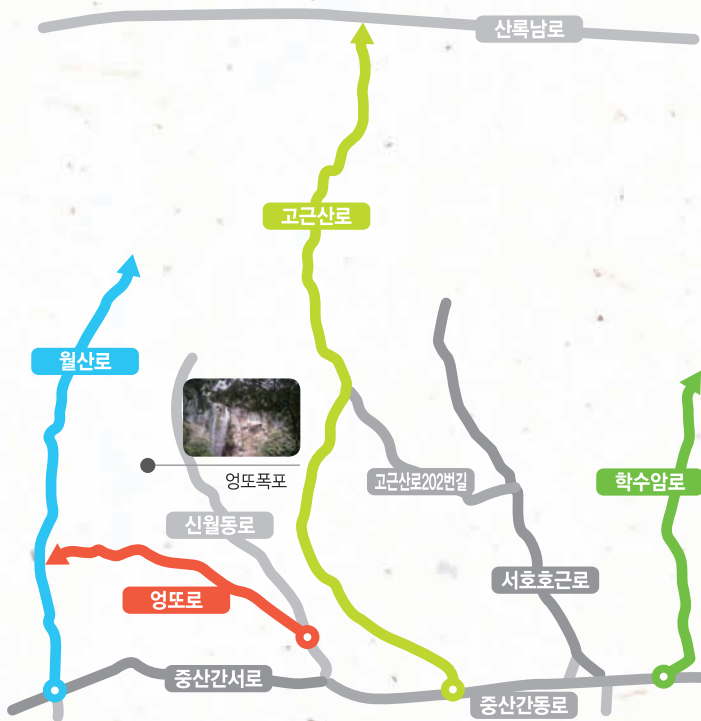


바위 아래 잠든 비운의 여인들



서귀포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오름들은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절경을 보여준다. 서귀포의 숨겨진 명소인 각시바위에는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비운의 여인들의 슬픈 이야기가 전해온다.



학수암로 | 서귀포시 호근동 2018 ~ 서귀포시 호근동 1042(약 1.6km)

고근산로 | 서귀포시 서호동 1255-2 ~ 서귀포시 영남동 산2-3(약 4.1km)

월산로 | 서귀포시 강정동 1905-15 ~ 서귀포시 강정동 1726(약 2.3km)

영도로 | 서귀포시 강정동 102 ~ 서귀포시 강정동 1845(약 1.5km)

학수암로 | 각시바위

호근동의 북쪽으로 이어지는 **학수암로**는 학수바위에 가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부여된 이름이다. 이곳의 지형이 마치 학이 양 날개를 펼친 것과 같아서 학수바위라고 불렸다고 한다. 이 바위는 각시바위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에는 비운의 여인들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 고을 원님이 사냥을 나서면 경치가 좋은 이 바위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원님의 흥을 더하기 위해 기생이 함께 따라 다니는데 어느 날은 한 기생이 원님이 다른 관기를 더 아끼는 모습을 보자 질투심에 불타 실수인 것처럼 절벽에서 밀어버렸다고 한다. 원님은 억울한 죽음을 맞은 관기를 가엾게 여겨 이 바위 아래 장사를 지내주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어느 집 며느리가 자식을 낳지 못해 고민하다 절에 들어가 백일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정성을 모아 기도를 드리던 중에 그만 응큼한 절의 중에게 몸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런데 덜컥 임신이 되어 버린 것이다. 여자는 중의 아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밤새 울다 자결을 하고 말았다고 한다. 이후로 이 바위를 각시바위 또는 열녀바위라고 불렸다고 전한다. 오름 정상에 오르면 멀리 펼쳐진 푸른 바다와 썰섬, 새섬, 문섬 등의 섬들, 그리고 서귀포 시내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숨겨진 명소이다.

고근산로 | 고근산

학수암로 서쪽으로는 서호동의 중산간동로에서 시작해 산록남로까지 이어지는 **고근산로**가 나 있다. 고근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인 이 길은 신도심과 중산간을 연결해 주는 길이다. 고근산은 고공산, 호근산으로 부르기도 했었는데, 예전에는 이곳이 대정현과 정의현과 경계를 이루었다. 그래서 고근산을 서로 자기네 구역에 포함하려고 두 현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었다고 한다. 고근산 남동쪽에는 나라에 국상이 일어났을 때 곡을 하던 곡배단이 있었다고 하고, 남서쪽에는 강아지가 빠져 죽었다는 수직동굴이 있다. 이 동굴에 돌을 던지면 범섬으로 나온다는 우스갯소리도 전한다. 고근산은 제주의 창조신인 설문대할망과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온다. 설문대할망이 심심할 때면 한라산 정상을 베개로 하고, 고근산을 허리에 걸치고 누워 서귀포 앞바다에 발을 뻗었는데 발가락이 범섬에 닿는 바람에 섬에 구멍이 뚫리고 말았다고 한다. 고근산은 1시간 정도면 둘러볼 수 있는 오름이다. 산책로가 잘 마련되어 있어 부담 없이 오를 수 있다. 오름 정상에 도착하면 학수바위에 못지 않는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월산로/영포로 | 월산동 영토평포



영토평포

월산로는 월산동으로 연결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예전에 이곳은 종복이왓이라고 했는데 나무들만 있던 곳을 종복이란 사람이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데서 그렇게 불렀다고 한다. 1900년대에 들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이주해 오면서 마을을 이뤘다. 지금은 강정동의 여러 마을 중 하나이다.

월산로와 이어지는 **영포로**는 특이한 폭포인 영토평포로 가는 길을 의미한다. 영토평포는 작은 굴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뜻이라고 한다. 제주의 다른 유명한 폭포들과 달리 이 폭포는 특이하게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큰 비가 와야만 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폭포이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보다 비가 오는 날이나 그 뒷날 떨어지는 물을 구경하기 위해 오히려 더 붐비는 곳이기도 하다. 약 50m 높이의 절벽에서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는 장관을 이룬다.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비가 와야 물이 흐르는 영토평포의 독특한 점이 소개된 후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되었다. 폭포 주위에는 천연난대림이 숲을 이루고 있어 사시사철 푸르름을 자랑한다. 영토평포는 서귀포가 자랑하는 70경 중 하나로 꼽힌다.